



# 편중된 육류소비성향 분산되어야

가격 자율화에 따른  
쇠고기 소비분화는 계란과 닭고기로 대체하여야 한다

김 희 진

(월간양계 편집부)

## 쇠고기값 자율화 가격표시제의 배경

쇠고기 가격의 자율화로 인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경제규모의 확대와 한우육(韓牛肉)의 절대량 부족으로 축산당국에서는 그간 외국에서 쇠고기를 들여와 그 수입육으로 초과수요를 충족시키고 쇠고기 가격의 안정을 꾀했으나 일부 정육점에서는 수입육을 한우육이라고 속여 팔기도 하고 또한 폭리를 취하기도 하는 등 유통상의 부조리가 횡행하고 있었다.

정부는 정부대로 쇠고기에 편중된 국민적 육류소비취향과, 쇠고기 수입은 축산농가에 큰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생산자 사이에 끼어 크나 큰 고충을 겪고 있다.

이는 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보현)에서 열린 쇠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소비자와 생산자는 제각기 의견이 달랐는데, 생산자는 수입육을 들여다 마구 풀어 놓는 것은 축산농민들의 희생과 국내 수급구조의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입을 모았고 소비자들은 또 그들대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식품을 낮은 가격에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고 주장했는데 대체적으로 당분간 쇠고기 가격이 높아지더라

도 쇠고기 수입을 억제하여 필요한 최소량만 도입하고 쇠고기 자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집약되었다.

정부의 생각도 이와 대동소이했던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우 절대두수의 격감으로 인해 쇠고기 수입을 앓고 현재의 추세로 쇠고기를 소비한다면 '86년에 이르러서는 그 숫자가 거의 제로(0)에 가까와지리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한우의 보존, 증식을 꾀하고 만성 쇠고기 수입국으로의 몰락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또한 생산자들을 보호하고 유통상의 부조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긴박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행정규제에 기인하는 공공연한 부조리를 씻어내고 생산농민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쇠고기 가격의 결정을 시장기능에 맡기기로 하였으며 이로써 쇠고기 가격은 지육경락가격에 적정이윤을 더한 선에서 결정된다는 이론이고 각 정육점에게는 가격표시 의무화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쇠고기를 구입토록 하며 생산자들에게는 적정생산비를 보장해 준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 자율화의 경과

그런데 그간 행정규제로 억눌려 왔던 쇠고기 가격이 자율화로 규제가 풀리자 마구 뛰고 있으며 돼지고기 가격도 덩달아 많이 올랐다. 따라서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요량은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계란과 닭고기의 소비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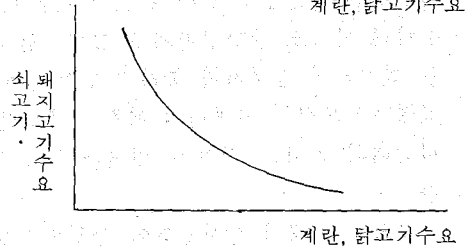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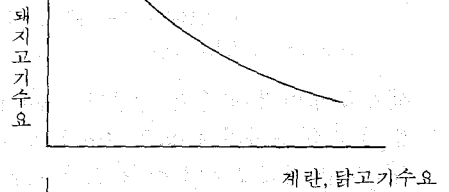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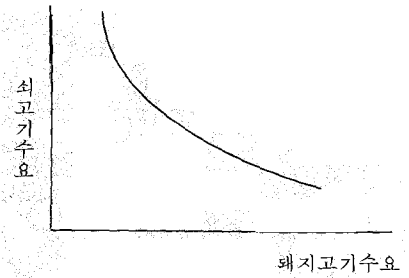
그동안 유통상의 문제만큼이나 많이 지적을 당해 왔던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편식취향이다. 대다수의 사람이 닭고기, 돼지고기는 일단 제쳐 놓고 쇠고기에 대해 거의 무조건적인 선호경향을 보여 왔던 것인데, 이제 자율화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쇠고기 수요는 격감할 것이며 돼지고기 또한 가격이 덩달아 뛰어 더 이상의 수요상승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결론은(?) 바로 계란과 닭고기이다. 즉 지금이 주춤하고 있는 쇠고기, 돼지고기에 대한 유효수요(有效需要)를 계란과 닭고기로 끌어 들이기에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상호 대체재이기 때문에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요감소는 계란과 닭고기의 수요증가에 직결되는 것이다.

다음 그림에서 보듯 각 축산물에 대한 수요는 서로 반비례의 관계에 놓여 있어 일방의 수요감소는 곧 다른 쪽의 수요증가로 귀착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계란과 닭고기의 소비신장에 주력해야 할 때다.

이미 정부와 축협중앙회가 닭고기, 돼지고기 소비촉진에 대한 범국민적 캠페인에 나섰다. 축협중앙회는 쇠고기 자율화 실시 하루



전인 4일에 육류소비구조 개선촉진본부 (본부장: 이종민 축협부회장)를 설치 육류식생활 개선을 위한 장단기계획 수립에 돌입했다.

이러한 홍보활동 외에도 각계에서는 돼지고기, 닭고기가 영양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소화흡수면에서 볼 때도 쇠고기를 능가한다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 모두에게 바란다

지금 쇠고기 가격의 자율화로 쇠고기 가격이 상승하여 그 수요는 감소하였으며 돼지고기 또한 가격이 크게 올라 쇠고기 수요감소를 상쇄할 만큼의 수요증가가 있으리라고는 보기 어려운 데다가, 그나마도 정육점에서는 판매를 기피하고 있어 계란과 닭고기의 수요가 증가할 여지는 매우 넓은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자율화를 축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의



△ 편중된 국민의 육류소비는 돼지고기, 닭고기 소비로 개선되어야 한다.

계기로 삼아서 편중된 국민의 육류소비성향을 골고루 분산시켜 모든 축산물의 소비율을 바람직한 상태로 이끌어 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나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어 근본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축산정책으로서는 기대하기 어렵고 양계산물 소비증대의 기회로 삼는데 만족해야 할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양계인들이 안일한 상태로

있을 때는 아니다.

자율화로 인한 충격은 언젠가는 가시게 마련이다.

즉 잠시 주춤했던 수요는 소비자가 충격에 적응할 수 있게 되면 다시 원상으로 회복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그 충격이 가시기 전에 양계산물의 소비신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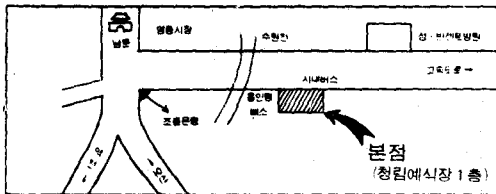
지금 계란가격은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 요인은 이번 여름의 폭서로 인한 폐사, 수출로 인한 심리적 요인, 그리고 추석 대목을 노린 비축 등에 기인한 것이어서 결코 장기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아울러 도계법 단속으로 인한 육계값의 폭락 등 양계업은 조그마한 충격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계란과 닭고기의 소비를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아 굳게 뭉쳐서 적극적인 대책으로 우리의 권익을 되찾을 수 있는 슬기를 가져야겠다.

# 수원 가축 약품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750-66  
(청림예식장 1층)

☎ (수원 2-2583)



- \*축산인의 사랑방\*
- \*가축질병·시양관리상담\*
- \*가축약품\*
- \*축산기구\*
- \*기타축산관계일체\*